

韓·日 初等學校의 漢字教育 比較研究

박 세 진 *

<目次>

- | | |
|-------------------------|---------------|
| I. 서론 | III. 韓·日 초등학교 |
| II.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의
필요성 | 한자교육의 비교 |
| | IV. 결론 |

<국문 초록>

한자문화권이라 불리는 韓·中·日 三國에서는 여전히 漢字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들 各國은 漢字라는 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漢字가 사용되는 상황은 동일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自國 문자가 아닌 유입된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日本과 비교함으로써 韓·日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러한 한자가 동 아시아 三國의 원활한 교류와 의사소통에 매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체계적인 한자교육이 초등교육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국의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자교육의 실태를 한자교육의 변천사, 교육한자의 수, 교육한자의 자형 및 획수, 교육한자의 부수, 한자교과서 순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韓·日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韓國의 한자교육은 절대적으로 열등하다. 동아시아의 한자 교육의 상황을 견주어 볼 때 韓國의 한자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초등학교 정규교과 과정에서의 필수과목으로 선정하는 것

* 춘천교육대학교 강사 / psjjj@hanmail.net

이 급선무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검증된 교과서와 전문적인 교사 양성 등도 해결되어야 할 제반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육현실이 도래된다면 한자문화권 간의 공통된 문화적 공감은 물론, 더 나아가 전통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발전될 것이다.

【주제어】 한자문화권, 초등학교, 한자교육, 교육한자, 정규교과과정, 필수과목

I. 서 론

漢字文化圈이라 불리는 韓·中·日 三國에서는 지금까지도 漢字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漢字가 다른 表音文字와는 달리 ‘表意性’을 지니고 있는 文字라는 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고 각기 다른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중요한 要因이다. 또한 이러한 문자를 통해 문화적 同質性이 유지된다는 것은 三國의 언어가 틀려도 외국어로서 문자로 접할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 주고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울 때에도 그 유용성이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나라에서 한자가 사용되는 상황은 동일하지 않다.¹⁾ 상용한자의 비율만 보아도 中國은 漢字를 자국의 전용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日本은 가나(假名)와 혼용을, 韓國은 한글을 주요문자로 삼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보조적인 문자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자문화권내에 있는 日本의 소학교 한자교육과 비교함으로써 한자의 早期教育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漢字가 東아시아 三國의 원활한 교류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체계적인 한자교육이 초등교육부터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한국 1,800자·중국 3,500자·일본 1,945자·북한 3,000자(1968년부터 실시)·대만 4,808자(常用國字).

II.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의 필요성

漢字文化圈 중 漢字교육[漢文교육]을 국어교육 안에서 실시하지 않고 독립시켜 별도의 교과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그렇다고 한자교과가 기본 교과로 편성되어 비중 있는 교과목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은 아니다. 국어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고 법률·경제·의학 등 전문용어에서는 95%이상을 차지하는 한자 어휘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의 시간에 속하지 않아 배우지 못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학입시 공부에 밀려 학습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로 급증하는 현대적인 學術用語나 新造語 등을 우리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본에서 만든 용어를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요즘 일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한자급수 자격취득을 위한 한자교육의 열풍이 일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들이 입사시험에 한자의 비중을 두고 있고 한자급수 3급 이상 되면 국가 인정 자격증의 수여 및 가산점 부여 등으로 그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한자교육이 왜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의견은 많지만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에는 적기가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미국 UCLA의 폴 톰슨 연구팀은 네이처誌에 발표한 「대뇌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언어 기능과 연상 사고를 담당하는 측두엽 영역인 ‘칼로솜이스무스 (callosalsthmus)’의 성장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7세부터 12세까지 즉, 초등학교기간이 언어 학습의 최적시기임을 밝혀냈다. 언어와 문자는 학습의 최적기에 교육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문교과와 연계됨으로써 중학생은 언어 및 문자 학습의 최적기를 지나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한자를 배우기 때문에 한문수업의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학습의욕은 저하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 교육을 해서 한문 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실정이라서 학생들의 한자·한문 실력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의 성공적인 한문 학습을 위해서라도 초등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한자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漢字教育은 汎教科²⁾ 教育으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써 타 교과의 학습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즉 社會, 科學 과목 등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한자교육은 각 교과에 나오는 한자로 된 용어를 유용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장희구는 그의 연구³⁾에서 초등학교 3학년용 교과서를 국한혼용으로 국어, 산수, 자연 교본을 제작 지도한 결과 한자를 지도함으로써 국어 학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산수, 자연과목에서 나오는 어려운 어휘를 스스로 독해 할 수 있어 교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셋째,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 한문은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자 문화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구적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문화 창조에 바탕이 되고 동아시아의 문화를 연결시켜 주는 상징적 도구⁴⁾이다. 이러한 한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으로서의 한자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
- 2) 방인태·김창호·한은수, 『초등학교 한자교육』, 역락, 2006.에서는 한자가 다루는 것이 한자와 한자어이므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교과가 그 도움을 받고 학습 용어상의 유용성을 확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 장희구, 「한자 학습지도가 교과 학력 향상에 미치는 내재적 영향」, 『語文研究』 제24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1979.
 - 4) 윤채근, 「동아시아 문화정체성과 한자·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제2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에서는 한자·한문은 중국의 문자나 문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를 연결시켜 주었던 상징적, 우주론적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자교육은 동아시아의 교류확대⁵⁾와 나아가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 중국의 13억 인구가, 일본의 1억 3천만 인구가 한자를 배우고 있다. 몇 년 후엔 세계 최대의 인구 보유국인 중국의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면 세계의 공용어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이것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다. 일부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한문은 보수적이어서 경제 성장과 세계화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을 보면 그 견해는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한다. 오히려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권 아래에 있는 중국·일본과의 조화로운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한자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中國語, 日本語 학습을 위해 漢字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대인 만큼 중국, 일본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한자를 몰라 1-2년을 허비하면서 한자교육을 따로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수행하는 능력을 학생들이 구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Ⅲ. 韓·日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비교

1. 한자교육의 변천사

1) 한국의 한자교육 변천사

한국의 한자교육과정의 변천사를 보면 한자 허용, 한자 혼용, 교육한

5) 류준필, 「한자문화권 문화교육에서의 고문 활용방안과 그 의의」, 『중국어문학지』 제26집, 중국어문학회, 2008.에서는 한국 한문교육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수행하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무교육과정에서 중국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고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 제정 및 폐지, 기초한자의 제정 등 많은 혼란과 변화를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에서는 한자가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해서 그 혼란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의 중요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보고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 아닌 문맹자가 되었다. 변천사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12월	한자의 전 교과서를 전면 한글로 편찬 발행
1948년 10월	한글전용법 공포
1950년 1월	상용한자 1200字, 교육용한자 1000字 선정
1952년 1월	교과서 개편 (4학년 이상 교과서에 1000字를 괄호 안에 삽입)
1963년 2월	교육과정 전면 개정으로 4학년 이상 漢字教育 실시
1965년 4월	국어교육과정 개편(한자를 국어 교과서에 600字 노출)
1970년 3월	순 한글 교과서로 개편
1972년 8월	교육용 기초한자 1800字 선정발표
1972년 9월	중·고등학교 漢文과 독립
1996년 4월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재량 ⁶⁾ 시간에 선택적으로 한자지도 가능
1997년 12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 활동 ⁷⁾ 시간에 선택적으로 지도 가능
2000년 12월	기초한자 수정 (중학교용 900字, 고등학교용 900字 구분제시 44字 교체)

제6차 교육과정기에 학교 재량 시간이 편성되고 漢字가 敎科로

-
- 6) 초등학교 6차 교육과정은 교과, 특별활동, 학교 재량시간으로 편성되었다. 학교 재량 시간의 배당 기준은 3, 4, 5, 6학년 모두 연간 34시간을 설정하였다. 학교 재량시간의 운영은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되,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된 교과 및 특별활동의 보충·심화 또는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창의적 교육 활동(예; 한문, 컴퓨터 노작 등)을 골라서 지역 특성과 학생 실정에 알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1992.)
 - 7)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공통 기본 교육 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었다.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1998.)

서의 位相을 가지게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1997년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수준의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과정으로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는 기존에 정비되지 않은 교육과정 체제를 처음으로 수립했다는 것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 時數⁸⁾는 6차 教育課程期 보다 증가되어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관한 국가 수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수 확보와 그 운영에 다른 교과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재량활동의 기본 방향을 교과 재량활동이 아닌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⁹⁾ 한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물이 적지 않다.

2000년 12월에는 한자교육과 국어 생활을 동시에 고려하고,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할 수 있는 한자를 선정하여 기존의 기초한자를 수정하였다. 현행 1,800자 체제는 유지하며, 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용 900자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44자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에 쓰인 한자는 교육용 한자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도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음과 자형을 가진 한자도 교육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모두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용 도서 편

8)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 시간은 1학년의 경우 연간 60시간, 2-6학년의 경우 68시간이 설정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확대’라는 개정방향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재량 활동의 학교 자율권이 강화된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재량 활동에서 학생을 중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 창의적 활동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으로서의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교육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2007.)

찬의 효율성을 제고해 1%범위 내에서 追加字 사용을 허용하였다.

한자교육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한자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에 부흥하듯 한자 교육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듯이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어문정책의 혼란으로 학교에서는 일관성 없는 교과목으로 전락되어 있는 한자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과로 초등학교부터 확연하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일본의 한자교육 변천사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漢字廢止論, 漢字節減論, 漢字擁護論 등이 함께 제기되었다. 그 이유 역시 한자의 학습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小學校에서 사용할 漢字 1,200字를 결정한 것을 시초로 수정을 거듭하면서 의무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한자의 제한을 계속해서 두어왔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 있어서는 한자의 제한을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어려운 한자·한자어 옆에 후리가나[한자를 읽는 일본문자]를 달았기 때문에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만 알고 있으면 어떤 한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보안책을 둔 것이다. 그 중에서 외래어나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가타가나로 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1923년 「臨時國語調査會」에서 1,962字(略字體 154字 포함)를 상용한자로 선정. 약자체 이외는 강희자전체를 표준으로 인정.

1946년 (미군 점령기시) 일본어표기의 로마자화 권고, 한자폐지 정책 추진(실패)

1948년 2월-1981년 9월 當用漢字字體表¹⁰⁾ 제정. 학교교육과 일반사회의 상용한자 수를 1,850자로 제한하고 각 한자의 품(2,099)과 訓(1,830)을 제한하여 제시.

10) 當用漢字字體表의 머리말에는 字體의 기준을 제시하고 한자의 읽기, 쓰기를 쉽게 하고, 정확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쓰여있다.

- 1951년 학습지도요령에 소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881字와 학년별 배당표를 제시함. 正字體가 略字體로 바뀌어 활자화 됨. 1,850字 중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나머지는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명용 한자 92字 제시.
- 1968년 소학교 교육한자 996字 선정
- 1981년 상용한자¹¹⁾표 제시. 당용한자에 95字를 추가하여 1,945字 제시. 훈표(音訓表 (훈 2,187·訓 1,900)¹²⁾와 人名과 地名용 한자 166字를 제시(추후 118字 추가 총 284字). 소학교 교육한자 1,006字¹³⁾를 학년별 제정 발표.

11) 이것은 실제로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자의 자중, 자체, 음훈, 예시어 등을 함께 제시한 것이며 ‘당용한자’ 등의 내용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서 쓰이는 효율적이며 공통성이 높은 한자를 수록하여 알기 쉽고 통하기 쉬운 문장을 쓰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상호간의 의사전달과 이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용한자를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한자 수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상용한자의 수만 봐도 한국의 한자교육이 제일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한국 1,800字·중국 3,500字·일본 1,945字·북한 3,000字(1968년부터 실시)·대만 4,808字(常用國字))

12) 예를 들어 『金』의 훈 ①きん, 金貨 [きん-か] ②こん, 金剛[こん-ごう], 『金』의 훈 ①かな, 金網[かなあみ], ②かね, 金元[かねもと]에서와 같이 동일한 한자를 훈과 훈으로 발음하고, 훈과 훈에서도 각각 1개 이상의 발음이 있어 그 수를 제한하여 제시하고 있음.

13) 『學年別配當漢字』 www. mex. go. jp (2007/11/24)

1학년

一七九二八入八力十三上下千口土夕大女子小山川中五六円天手文日月木水火
犬王出右四左本正玉生田白目石立休先名字年早氣百竹糸耳虫村男町花見貝赤
足車學林空金雨青草音校森

2학년

刀万丸工弓才今元公内分切午友太少引心戸方止毛父牛兄冬北半古台外市廣母
用矢交會光合同回地多寺当每池米羽考肉自色行西休何作凶聲賣弟形來汽社角
言谷走近里·京國夜妹姉岩店明東步畫直知長門前南室後思星春畫活海点秋科茶
計風食首原夏家歸弱時書紙記通馬高強教理細組船週野雪魚鳥黃黑場晴朝番答
繪買道間雲園數新樂話遠電歌算聞語讀鳴線親頭耀顏

3학년

丁子化區反世主仕他代寫去号央平打氷由申皮皿礼兩全列向守安州式曲有次死
羊血住助医君坂對局役投決究豆身返事使具取受味命和始委定實岸幸所放昔服

위의 상용한자 실시는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위의 변천 과정을 보면 당용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법령, 공문서, 신문, 잡지와 일반사회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서 當用漢字表에 들어 있지 않은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적인 면이 강했다. 반면 상용한자는 ‘법령, 공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효율적이고 공통성이 높은 한자로서 알기 쉽고 소통이 용이한 글을 쓰기 위한 한자사용을 목표로 하여 제한적인 면을 완화하였다.

교육한자변천 과정을 보면 한자의 수는 한국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板油波注泳物者育苦表乘係品客屋度待急拾持指昭柱洋炭界畑發相縣研神秒級
美負追送重面倍勉員官島庫庭息旅根流消病眞荷起速配酒院動商問宿帳惡族深
球祭章笛第終習轉進部都勝寒悲暑期植齒溫港湖湯登着短童筆等落葉輕遊運開
陽階集飲想意感暗業漢福詩路農鐵樣綠練銀驛鼻橫箱調調整橋藥館題

4학년

士不夫欠氏付令以功加包史司失必未末札民辺爭仲伝兆共印各好成灯老衣位低
兒兵冷初別利努勞告困完希折改材束求臣良芸例典刷卒協參周固季官底府徑念
松果毒治法泣牧的芽便信勇單型變建昨榮淺省祝紀約胃要軍飛會候借孫害差
席帶徒學料案梅殘殺浴持笑粉脈航訓連郡停健側副唱堂巢康得救敗望械清產票
菜貨陸博喜歡景最極滿無然燒結給街覺象貯費達量隊順飯働塩愛戰照節續置腸
試辭察旗歷漁種管說關靜億器標熱課賞輪選養機積錄觀類驗鏡願競議

5학년

久佻支比刊句可壓布弁旧永犯示假件任再因团在舌似余判均序志忝快技條災狀
防備制券効妻居往性承招易枝武河版肥舍述非保則厚政故查獨祖迷退逆限修倭
個容師恩格櫻留益破素耕能財造務基婦寄常張情採接斷液混率現略眼移經術
規設許貧責險備營報富屬復提檢減測程稅統絶証評貸貿賀過勢墓夢幹損準禁罪
群義解豐資鉢預飼像境增德態慣構演精綿總製複適酸銅錢際雜領導敵暴潔確編
贊質燃築興輸績講謝織職額識護

6학년

亡寸己干仁收尺片冊處幼廳穴危后吸存宅字机灰至亂卵否困孝忘我批私系並乳
供刻呼垂宇宙宙屆延忠担拜擴枚沿若城奏姿宜專卷律映染段泉洗派皇看砂紅肺
背革俳值党射將展座從朗株班秘納純胸蝨討針降陞除骨域密捨探推欲濟異盛窓
翌腦著視訪譯郵鄉閉頂割創勤善尊就揮敬晚棒痛筋衆裁裝補詞貴傷幕暖源盟
絹署聖腹蒸裏誠賃層暮模疑磁穀誌認閣障劇權潮熟藏誕論諸遺奮憲操樹激糖
縱鋼優嚴縮覽簡臨難臟警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가나와 함께 혼용을 하는 일본의 어문정책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하에 필요성에 의한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2. 교육한자 數의 비교

韓國의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몇 자를 익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학교에서 익혀야 할 900字 안에서 600字 가량을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과정에서는 교과, 재량, 특별활동으로 나뉘는데 한자교육은 재량활동시간에 이루어진다. 재량활동은 1학년의 경우 연간 60시간, 2-6학년의 경우 68시간이 설정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 창의적 활동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편성되었다.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전처럼 자율학습시간이나 종례시간에 간헐적이고 비체계적으로 한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량활동에 근거하여 정규과정 시간에 한자 교육을 시행할 수 기반이 마련되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량활동이란 현실적으로 학교수준 교육과정¹⁴⁾에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임교사의 재량에 의해 교육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로 많은 초등학교에서 한문교육이 실시되는 못하고 있고 한문을 중시하는 일부 교장의 취향에 따라 한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日本에서는 한국처럼 한문교과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과에 포함되어 있다.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 전 幼稚園 교육

14)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육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수준의 기준에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시·도 교육청 지침에서는 한자 관련 내용이 일부 제시 되었다.

과정에서 小學校 1학년 漢字 80字와 2학년용 漢字 160字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漢字를 합해서 약 120字 정도를 교육한 다음에 취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체제는 小學校 1학년이 되어서 다시 80자의 漢字를 이수하게 될 때 기초한자를 철저히 復習하게 함으로써 한자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주어 학생들이 국어책을 접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다.

日本은 小學校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수해야 하는 교육한자 1,006字 (<표1> 참조)를 학년별로 교육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자를 단계별로 구분시켜 학습 부담이 과중되지 않게 배려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한층 체계적이다. 한편 日本은 小學校에서 1,006字를 익히지 못하고 중학교에 가면 새로운 상용한자¹⁵⁾를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학교에서 학습을 마쳐야 하므로 한자교육을 조기에서부터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국어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和漢混用¹⁶⁾의 表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國漢文混用과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체언을 한자로 표기하지만 일본에서는 동사나 형용사도 한자로 표현하고 있고 반드시 한자로 표현해야만 되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한자는 국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麵을 먹다.[麵めんを食たべる]’, ‘강은 푸르다.[川かわは青あおい]’ 등 용언에서도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의 의존도는 당연 한국 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어문 체계는 절대적으로 한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자의 사용을 익숙하게 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小學校 교육한자 1,006字만 익혀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15) 일본은 1,945字的 常用漢字를 사용하고 있으며 中學校 1학년에서는 小學校에서 배운 1,006字 외의 常用漢字 中 250-300字 정도를 익히도록 되어있다.

16) 和漢混用 : 가나와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

<표1> 초등학교 학년별 한자교육 지도표¹⁷⁾

학년	韓國		日本	
	학년별 한자	지도내용	학년별 한자	지도내용
1	90자 범위 내 에서 600자 가량 ¹⁸⁾	1. 한자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게 한다. 2. 한자어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게 한다. 3. 간이하고 평이한 한자 어구를 익히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 ¹⁹⁾	80字	80자를 읽고 쓸 수 있게 한다. 학습한 한자는 문장 중에서 쓸 수 있게 한다.
2			160字	1, 2학년에 배당한 한자를 모두 읽고 쓰게 한다. 학습한 한자를 문장 중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3			200字	1, 2, 3학년에 배당한 한자를 모두 읽고 쓰게 한다. 학습한 한자를 문장 중에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한다.
4			200字	1, 2, 3, 4학년에 배당한 한자를 모두 쓰게 한다. 학습한 한자를 문장 중에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며, 한자의 구성 원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5			185字	1, 2, 3, 4, 5학년에 배당한 한자를 모두 읽고 쓰게 한다. 문장에서의 한자의 역할을 알고, 또 한자의 유래와 특질에 관한 초보적 지식을 가지게 한다.
6			181字	1, 2, 3, 4, 5, 6학년에 배당한 한자를 모두 읽고 쓰게 한다. 한자와 가나 혼합 문장에서의 한자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며, 가나 및 한자의 유래와 특징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다.

17) 日本의 학년별 지도표는 文部省編, 『小學校學習指導要領』, 1990.에 의거함.

한국의 기초한자 900字와 일본의 교육한자 1,006字를 비교해 보면 한·일 공통으로 배우는 한자와 한·일 각각에서만 배우는 한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문 등에서 자주 상용되는 한자는 韓·日간 공통으로 배우고 있으며, 한·일 각각에서 배우는 한자는 국가별 사회,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달리 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十干十二支, 行政區域, 語助辭 등에 사용되는 한자는 한국의 기초한자에 포함되나 일본의 교육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기초한자 900자와 일본의 교육한자 1,006자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한국의 기초한자(900字)와 일본의 교육한자(1,006字) 비교

한국에서만 배우는 기초한자	일본에서만 배우는 교육한자
佳脚渴甘敢甲江皆更巨乾堅庚驚慶 癸溪鷄坤勸其幾既吉乃怒端丹但到 洞斗浪郎涼旅烈勞露柳倫莫忙免眠 卯妙戊茂舞墨勿尾房拜杯伐凡丙伏	町森丸切台矢池舌羽汽社姉岩点茶革 組週繪曜予区写央皿州坂局役返具委 岸板泳係昭柱炭畑巢級級負倍員庫息 旅荷配院帳笛轉勝齒港湯遊階樣駅橫

18) 제6차 教育課程期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초등학교 한문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600자가 예시되어 있다. 이것은 중학교 기초한자 900자 중에서 600자를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자율성은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마다 한자수가 확연하게 다르다. 아래 예는 방인태외, 앞의 책에서 참조하였음.

1. 김봉영외 11명, 『초등학교 한자』, 한국생활한자교육연구회. 경기도교육감인정 - 627자
2. 학교법인 제철학원, 『어린이 한자』, 대한교과서(주). 경상북도 교육감인정 - 528자
3. 이향우외 1인, 『초등학교 신나는 한자』, 천재교육(주).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 565자
4. 정우상외 3인, 『초등학교 한자』, 전통문화연구회. 서울특별시 교육감인정 - 608자
5. 홍성식외 3인, 『초등 한자와 생활』, 학문사.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정 - 338자. 等

19)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1997.

한국에서만 배우는 기초한자	일본에서만 배우는 교육한자
<p>奉逢扶浮朋巳尙霜喪惜鮮仙姓歲俗 誰須雖愁樹壽修秀叔淑戌崇勝是施 辛甚案巖仰哀也讓揚於憶與汝如亦 煙硯悅炎迎吾悟烏瓦臥曰于憂又尤 遇云雄怨爲偉威酉猶唯遊柔幼乙陰 吟邑依矣巳而貳忍寅壹壬慈姉裁哉 井貞淨帝鐘坐朱即曾只之辰盡執此 且昌聽請丑充吹致齒脫泰篇抱楓彼 匹韓恨閑恒亥香虛賢刑惠乎虎或婚 華歡患凶</p> <p style="text-align: center;">약 199字</p>	<p>箱整館欠付包司札辺仲努勞困折束求 刷周底府徑毒牧芽型紀胃倉候差帶案 梅殘粉脈航健側副巢康械票博燒覺象 費隊働塩照置腸辞旗管器標輪機積録 類驗鏡刊圧弁犯件任団似糸災制券版 肥述査迷修俵格桜寄張断液率略術規 険當属提檢測程評貸貿墓夢幹損準群 資鉦預飼像境態慣構演綿総複酸銅際 雜導確編贊燃築衛輸績織職額護幼庁 穴后机灰乱批系並乳供刻垂宝届延担 扨拵枚沿奏委宣専映染段派砂肺背俳 值党座朗株班秘納蚕討陞域捨濟翌腦 訳郵割創揮棒痛筋策裁装補詞幕源盟 絹署腹蒸蒸裏賃層模疑磁誌閣障劇潮熟 蔵誕奮憲操樹激糖縦鋼優縮覽簡臨臟 警</p> <p style="text-align: center;">약 305字</p>

3. 교육한자²⁰⁾의 字形 및 획순 비교

한자문화권의 三國인 韓·中·日은 각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정적이면서도 각국 정책에 맞게 약간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한 후 한자의 字體를 재정비하여 일상생활에서 正字體로 쓰이던 한자도 略字體로 바꾸어 활자화 하였다. 또한 日本文部省은 1923年 약자체 154字를 포함하여 1,962字를 常用漢字로 선

20) 한국은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한자수와 학년별 배당 한자 수에 관한 국가차원의 규정이 없다.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900字 內에서 600字 가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만들어진 교과서에 의해 가르쳐야 하므로 비교 字數를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字로 하였다. 즉 한국 기초한자 900자와 일본의 교육한자 1,006자를 형태별로 비교하였다.

정하여 自體的으로 字形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字形의 차이는 획순의 차이로 직결된다. 즉 자형이 간략화·단순화 되면 획수는 그에 맞춰 줄어들게 된다. 日本에서 漢字는 히라가나, 가타가나와 함께 일본어 표기의 주요문자이고 국어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획순과 형태의 어려움은 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苦衷을 유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習字教育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略字體의 문자 개혁을 단행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표3> 한국과 일본 교육한자의 字形 및 획순 비교

	字形差異																		
한국	蟲	圓	學	絲	氣	體	聲	廣	萬	臺	賣	歸	點	讀	會	圖	當	繪	畫
일본	虫	円	学	糸	気	体	声	広	万	台	売	帰	点	読	会	図	当	絵	画
획순차이	-12	-9	-8	-6	-4	-16	-10	-10	-9	-9	-8	-8	-8	-8	-7	-7	-7	-7	-4
한국	麥	國	數	晝	樂	來	每	海	社	黃	黑	步	禮	豫	醫	寫	驛	號	鐵
일본	麦	国	数	昼	楽	来	每	海	社	黄	黑	步	礼	予	医	写	駅	号	鉄
획순차이	-4	-3	-2	-2	-2	-1	-1	-1	-1	-1	-1	+1	-13	-12	-11	-10	-9	-8	-8
한국	區	對	縣	轉	實	齒	發	兩	研	藥	輕	乘	惡	暑	樣	橫	溫	漢	神
일본	区	对	県	転	実	齒	発	両	研	薬	軽	乘	悪	暑	様	横	温	漢	神
획순차이	-7	-7	-7	-7	-6	-3	-3	-2	-2	-2	-2	-1	-1	-1	-1	-1	-1	-1	-1
한국	福	練	者	都	眞	綠	勉	變	邊	鹽	藝	燈	舉	續	覺	傳	缺	觀	辭
일본	福	練	者	都	真	緑	勉	変	辺	塩	芸	灯	挙	続	覚	伝	欠	観	辞
획순차이	-1	-1	-1	-1	0	0	+1	-14	-14	-12	-11	-10	-8	-8	-8	-7	-6	-6	-6
한국	勞	圍	榮	關	驗	燒	單	參	戰	爭	徑	歷	殘	淺	滿	節	靜	兒	器
일본	劳	围	荣	関	験	焼	单	参	戦	争	径	歴	残	浅	満	節	静	児	器
획순차이	-5	-5	-5	-5	-5	-4	-3	-3	-3	-2	-2	-2	-2	-2	-2	-2	-2	-1	-1
한국	帶	梅	殺	祝	類	巢	錄	辯	瓣	壓	舊	辨	櫻	應	鑛	餘	屬	團	價
일본	带	梅	殺	祝	類	巢	録	弁	弁	压	旧	弁	桜	応	鉱	余	属	団	価
획순차이	-1	-1	-1	-1	-1	0	0	-16	-15	-12	-12	-11	-11	-10	-10	-9	-9	-8	-7

	字形差異
한국	斷 獨 證 假 營 檢 豐 險 條 贊 雜 佛 總 效 經 錢 增 德 狀
일본	断 独 証 仮 營 檢 豊 險 条 賛 雜 仏 総 効 経 銭 増 徳 状
획순차이	-7 -7 -7 -5 -5 -5 -5 -4 -4 -4 -3 -3 -2 -2 -2 -1 -1 -1
한국	祖 衛 廳 蠶 寶 黨 擴 譯 擔 亂 處 權 濟 覽 嚴 臟 藏 竝 收
일본	祖 衛 庁 蚕 宝 党 拡 訳 担 乱 処 権 济 覧 嚴 臟 藏 並 収
획순차이	-1 0 -20 -14 -12 -10 -10 -9 -8 -6 -6 -6 -6 -5 -3 -3 -3 -2 -2
한국	晚 專 腦 鄉 勤 將 層 從 拜 朗 穀 縱 署 著 裝 視 諸 難 屆
일본	晩 専 脳 郷 勤 将 層 従 拜 朗 穀 縦 署 著 装 視 諸 難 届
획순차이	+1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0
한국	祕 卷
일본	秘 卷
획순차이	0 +1

* 굵은 字는 일본의 교육한자에만 해당되는 한자이다.²¹⁾

일본의 略字體는 正字體를 간략화 한 것뿐만 아니라 간단히 자체를 정리하였다. 즉 正字體보다 略字體의 획수가 많은 것은 간략화보다는 자체의 정리가 목적이라 보여진다. 감소한 획수가 2개 이하인 것이 절반인데 이 정도로 교육효과가 극적으로 향상되리라는 생각은 할 수 없지만 한자를 생활화하기에 편하도록 노력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면 일본의 교육한자 중 1/6字 가량이 한국의 기초한자와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略字體는 본래 字形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있어 한국인들이 외국어로서의 일본어나 略字體를 학습하는데 있어서는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²²⁾ 그러나

21) 각 국의 한자 중 형태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획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22) 최용혁, 「韓·中·日 생활 기초한자의 자형 규범화를 위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239.

오랫동안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다가 시간이 흘러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범화되고, 각국에서 사용하는 자형의 변화로 인해 같은 문자를 매개로 한 문화적 공감대가 점점 약화될까 걱정스럽다. 그러므로 한자를 동아시아에서 소통의 매개체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물론 한자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 있어 교류확대 및 세계화를 위한 한자의 形態와 교육한자의 규범화 정책이 다소 필요하다고 본다.

4. 교육한자의 部首 비교

일본 한자의 형태가 일부 略字體로 달라짐에 따라 부수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종전에 한자의 의미부분을 중심으로 부수를 설정했던 체제에서 위치나 비중 중심으로 부수를 설정하는 체제로 바뀐 것은 문자체계가 간략화 되고 단순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4> 한국과 일본 교육한자의 部首 비교

번호	한국	부수	일본	부수	번호	한국	부수	일본	부수
1	巨*	亠	巨	匚	21	豫	豕	予	丿
2	舊	臼	旧	日	22	兩	入	兩	一
3	卷	冂	卷	己	23	與	白	与	一
4	歸	止	婦	巾	24	鹽	鹵	塩	土
5	及	又	及	丿	25	營	火	營	口
6	內	入	内	冂	26	爲	爪	為	灬
7	來	人	来	木	27	點	黑	点	灬

이 논문을 보면 한국 대학생들 상대로 일본의 略字體, 중국의 簡體字를 비교하여 형태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약자체를 더 선호하였다. 자형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제일 많은 답변은 첫제는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몇 자를 제외하고는 약자체에서 정자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번호	한국	부수	일본	부수	번호	한국	부수	일본	부수
8	當	田	当	小	28	應	心	応	心
9	黨	黑	党	儿	29	醫	酉	医	匚
10	臺	至	台	口	30	爭	爪	争	丿
11	冬	?	冬	父	31	盡	皿	尽	尸
12	萬	卅	万	一	32	處	虍	処	几
13	賣	貝	売	士	33	體	骨	体	彳
14	母	母	母	母	34	號	虍	号	口
15	辯	辛	弁	井	35	畫	田	画	凵
16	變	言	変	父	36	會	日	会	人
17	收	攴	収	又	37	竝	立	並	一
18	壽*	士	寿	寸	38	餘	食	余	人
19	寫	宀	写	冫	39	舍	舌	舎	口
20	聲	耳	声	士	40	脣	肉	唇	口

굵은 字는 일본의 교육한자에만 해당되는 한자

* 표시의 자는 한국의 기초한자에만 해당되는 한자

■ 표시는 글자의 형태는 같은데 부수가 다른 한자

위 표를 보면 教育漢字 중 약 40字 정도가 부수에 있어서 차이가 보여 진다. 일부 자형이 같은 한자 사이에서도 부수가 다른 한자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字形의 변화로 인해 부수가 달라진 형태이다. 이러한 부수의 차이는 사전이나 사전에서 한자를 찾을 때 부수로 찾는 공통된 방식²³⁾이었던 체계가 각 나라 한자의 형태가 변하고 그에 따라 부수가 서로 변모해 감에 따라 또 하나의 동아시아 문화권인 한자 패러다임으

23) 한자를 찾는 방식은 여러 형태이고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부수 설정을 위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마다 차이가 생겼다는 면도 고려해야 하는 점이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사전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보여준다.

로 인한 동질성이 달라지게 되는 양상이다.

5. 한자 교과서의 양상

일본은 한자 교육이 한국과 달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한자교과서와 일본의 국어교과서의 내용체계를 본고에서 비교할 논지는 없다.²⁴⁾ 그러나 한자를 배우는 시간과 검증된 교재의 사용은 한국과 다른 면을 보여준다. 일본은 검정 교과서 5종²⁵⁾으로 1학년은 272시간, 2학년 280시간, 3학년 235시간, 4학년 235시간, 5학년 180시간, 6학년 175시간씩 학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역 교육청 수준의 認定 교과서로 서울특별시 교육청만 현재 26개²⁶⁾정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자수업이 기본교과²⁷⁾에 포함되지 않고 재량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의 정식 인정을 받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 10%에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²⁸⁾ 또한 국가적 지침과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의 개발 보급이 수도권 지역으로 편재되어 있어 균등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교육현장의 실태는 객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한자교과목을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과목으로 인식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 차별성과 검증이 없는 사설학원에서 쓰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이 과연 한자교육이 공교육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까? 하루 빨리 교과개발의 지역편차

24) 각 국의 교육과정과 내용체계는 차후의 과제로 삼을 예정임.

25) 일본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는 國語와 書寫로 구분되어 있고 東書, 大書, 學図, 敎出, 光村 5종으로 文部科学省 檢定 교과서이다.

26) 서울특별시 교육청 (www. sen. go. kr)

27) 초등학교 기본교과는 학년별로 다르지만 5-6학년을 기준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총 10과목이다.

28) 방인태외 2인, 앞의 책. 참조.

를 줄이고 검증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모든 학교에서 한자교육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尺度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첫째, 한자 사용으로 인한 어문정책에 있어 양 국가들에게 많은 변천과 浮沈은 있었지만 폐지되지 않고 결국 필요에 의해 교육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가나와 混用 정책으로 한자가 필수적인 요소로 국어에 포함되어 생활화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글의 보조 수단으로서 기본교과에는 제외되었지만 재량시간에 학습되고 있다.

둘째, 국어 체계에 있어 한자의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습해야 할 한자 數는 확연하게 달랐다. 한국은 기초한자 900字에서 600字 가량은 학습하여야 하고 일본은 1,006字를 학년별로 구분하여 배우도록 되어 있다.

셋째, 일본은 한자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고자 한자의 형태를 간략화하는 略字體를 규범화 하였다. 教育漢字 중 170여字的 약자체는 형태에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정자체와 획순의 차이를 보였는데 획순이 줄어든 것도 있고 증가한 것도 있었다. 이는 한자를 생활화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들만의 정책으로 보여 진다.

넷째, 일본의 한자는 약자체로 형태가 변함에 따라 일부 부수도 변화하였다. 教育漢字 중 字形은 한국과 같으나 부수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각 국의 문화,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字形의 변화로 인해 부수가 달라진 것은 약 40字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 이전 한자의 의미부분을 중심으로 부수를 설정했던 체제에서 위치중심이나 비중 중심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한자문화권의 동질성이 다소 달라지는 양상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교과서를 보면 일본은 5종의 檢定 국어교과서에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 國·檢定이 아닌 각 市道 教育廳에서 승인된 많은 認定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지침이 없는 재량과목이기 때문에 한자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가 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각 학교의 현실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계적인 한자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실태를 옆 나라인 일본과 비교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각 나라의 문화·언어적 차이로 인해 한자의 사용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자가 한국의 문자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듯싶다. 실제로 필자는 일본 사람에게 ‘한자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대답은 간단하게 ‘한자는 생활이다.’였다. 비록 한자라는 문자는 오래전 중국에서 유입되었지만 현재는 필요에 의해 그 나라 상황에 맞춰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초등학교 한자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한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한자문화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낙후적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한자는 단지 보조적 수단이라고 여겼던 위험한 발상이 현재의 한자교육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한자는 더 이상 중국의 문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이며 우리의 문화유산인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초등학교 한자교육 상황에 견주더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검증된 교과서로 지역편차 없이 균등하게 가르쳐야 함은 물론 그에 앞서 비록 재량시간이지만 수학년의 확실한 시수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韓·日 兩國 교육한자 수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실태를 비교하였는데 다소 미비한 점은 차후에 韓·日 초등학교 한자교과의 내용체계를 과제로 삼아 보충할 것을 기약한다.

<부록1>

<韓國 中學校用 基礎漢字 900字와 日本 教育漢字 1,006字의 共通漢字>

家街可歌加價假角各干間看減感降講強改個開客去居車舉建犬見決結潔京
景輕經耕敬競季界計古故固苦考高告谷曲穀困骨工功空共公果課科過官觀
關光廣交校教橋九口救久舊句球國君軍郡弓權卷貴歸均極近勤根金今禁
給及急記期基氣技已起暖難南男內女年念農能多單短達談答堂當大對代待
德刀度道島都圖徒獨讀同童冬東動豆頭得等登燈落樂卵來冷良兩量力歷連
練列令領例禮路老綠論料流留六陸律里理利林立馬萬滿晚未望亡忘每買賣
妹麥勉面名命明鳴母毛暮木日武務無門問聞文物未味美米民密反飯半發方
放訪防白百番法變別病兵保步報福服復本夫父富婦部否北分不佛比非備悲
飛鼻貧氷四士史師死思事仕射謝使舍寺私絲山產算散殺三上常賞商相想傷
色生西序書暑夕石昔席先線善選船雪說設性成城誠盛省星聖聲世洗稅細勢
小少所消素笑速續孫送松水手受授守收數首宿順純習拾乘承市示時詩視始
試氏食植識式身神臣信新申失室實心深十兒我惡安顏眼暗愛夜野約藥弱若
羊洋養陽魚語漁億言嚴業餘余易逆然研熱葉永英榮藝五午誤玉屋溫完王往
外要欲浴用勇容宇右牛友雨雲運元原遠園願圓月位危由油有遺肉育恩銀音
飲泣應衣義議醫意二耳移以異益人因引仁認印一日入子字自者作昨長場將
章壯材財在再才爭貯低著的赤適敵田全前展電傳典戰錢節絕店接正政定情
庭精丁頂停靜弟題除製第祭諸早造鳥調朝助祖兆足族存尊卒種從宗終左罪
主注住晝酒宙走竹中衆重增證止知地指志支至紙枝持直眞進質集次借着察
參唱窓採菜責冊處妻尺千天川淺泉鐵青清晴體初草招村寸最秋追推祝春出
忠蟲取就治則親七針快打他探太宅土通統退投特波破判八敗貝便片平閉布
暴表品風豐皮必筆下何夏賀河學寒漢限合海解害行幸鄉向許現血協兄形好
號湖戶呼混紅火化花和話貨畫活黃皇回會孝效後厚訓休胸黑興喜希 (701字)

<參考 文獻>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1992.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2007.
- 김왕규, 「한국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문교육연구』 제2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류준필, 「한자문화권 문화교육에서의 고문 활용방안과 그 의의」, 『중국어문학지』 제26집, 중국어문학회, 2008.
- 박성규, 「한자문화권과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제2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방인태, 「초등한자교육론」, 『한국초등교육』38, 서울교육대학교, 1997.
- , 「초등학교 한문교육의 문제 및 해결방안」, 『한자한문교육』 제1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4.
- 방인태·김창호·한은수, 『초등학교 한자교육』, 역락, 2006.
-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1997.
- 송기중, 「한자 문화권」, 『새국어생활』 9-2, 국립국어연구원, 1999.
- 송재소, 「한국의 한자교육」, 『새국어생활』 9-2, 국립국어연구원, 1999.
- 심경호, 「일본에서의 한자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제14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0.
- 안재철, 「초등한문 교육과정의 변천」, 『한자한문교육』 제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5.
- 유창석, 「일본의 한자교육정책」, 『京畿專門大學 論文集』 제28호, 京畿專門大學, 2000.
- 윤채근, 「동아시아 문화정체성과 한자·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제2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이응백, 「한·중·일의 한자교육」, 『語文研究』 8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 이한섭, 「일본의 한자 교육」, 『새국어생활』 9-2, 국립국어연구원, 1999.
- 장재영의 3인, 『초등학교 즐거운 한자』 1-6단계, 천재교육, 2005.
- 장희규, 「한자 학습지도가 교과 학력 향상에 미치는 내재적 영향」, 『語文研

究』 제24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1979.

진태하, 「한·중·일 상용한자 규범화의 필요성과 실행성 연구」, 『새국어교육』 제6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0.

최용혁, 「韓·中·日 생활 기초한자의 자형 규범화를 위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한예원, 「일본 초·중·고 학교의 한자·한문 교육의 특징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제2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久米 公 編著, 『漢字指導の手引き』, 教育出版, 平成20年.

藤原 義隆, 『漢字指導の決の手』, 小學館, 1997.

文部省編, 『小學校學習指導要領』, 1990.

日本小學校 38光村 國語, 1-6학년, 上·下 『光村図書』, 平成 20년.

文部科学省 [www. mext. go. jp](http://www.mext.go.jp)

서울특별시 교육청 www. sen. go. kr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of Korean and Japanese elementary school / Park Se Jin**

Chinese character is widely used in a cultural area of Chinese character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linguistic conditions of each country are different although they have the same cultural base on Chinese character.

In this thesis,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 in Korean elementary school is examined, compared with the situation of Japan where Chinese character is normally used. It is emphasized that systematic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 should be carried from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expand cultural exchange and global communication by using the link of Chinese character. Also, the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 in elementary school of Korea and Japan is fully researched in order of transition, number, the form of the Chinese character of scholastic, the stroke count of the Chinese character of scholastic, a radical and text of Chinese character.

The result of research shows that a level of elementary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 is very low in Korea. According to studies of Chinese education in East Asia, the most impending matter of Korea is that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know the importance of Chinese character. It is necessary that the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 is included in a required subject of regular classes in elementary school, and that systematic and proven textbooks and training professional teachers are supplied.

When this educational condition is accomplished, a cultural area of Chinese

* Lecturer of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sjjj@hanmail.net

character will have common cultural sympathy. Furthermore, it will give growth and prosperity to life to be respectful of heritage.

【Key words】 a cultural area of Chinese character, an elementary school, the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 chinese character of scholastic, regular classes, a required subject.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5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